

# 청소년의 부모친밀도, 부모감독, 또래압력, TV술광고가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주현정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ffects of adolescents' parental intimacy, parental supervision, peer pressure, and TV alcohol advertising on drinking

Hyeon-Jeong Ju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친밀도, 부모감독, 또래압력, TV 술광고가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G시 8개 중학교 1~3학년 602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첫째,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또래압력, TV술광고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은 음주행위 정도를 14.4% 설명하였다. 둘째, 부모친밀도는 또래압력과 TV술광고를 통한 음주행위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감독은 TV술광고를 통한 음주행위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다중집단 조절효과에서 부모감독과 또래압력, 부모감독과 TV술광고의 경로계수가 집단간 차이가 있어 부분조절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음주행위를 줄이기 위해 또래압력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건강한 음주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TV 술광고, 부모와 자녀 관계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부모친밀도, 부모감독, 또래압력, TV 술 광고, 음주행위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structural model of the influence of parental intimacy, parental supervision, peer pressure, and TV alcohol advertising on drinking behavior for adolescents. It was conducted through a self-written questionnaire from May 1 to 28, 2019, targeting 602 students in grades 1 to 3 of 8 middle schools in G city. Results First, The direct effect on drinking behavior was in the order of peer pressure and TV alcohol advertisement, and they explained the degree of drinking behavior by 14.4%. second, Parental intimacy has an indirect effect on peer pressure and drinking behavior through TV alcohol advertising. Parental supervision has an indirect effect on drinking alcohol through TV alcohol advertisements. In multiple group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he parental supervision and peer pressure, and the parental supervision and the channel coefficient of TV alcohol advertisement. In order to reduce drinking behavior, a realistic light that can cope with peer pressure is needed.

Key Words : Parental Intimacy, Parental Supervision, Peer Pressure, TV Alcohol Advertisement, Drinking

\*Corresponding Author : Hyeon-Jeong Ju(joo97964@naver.com)

Received September 30, 2020

Revised October 25,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는 사춘기를 통하여 급격한 신체 성장 발달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보호받던 부분들이 없어지고 자신의 주체성을 찾기 위해 알고 싶은 의욕과 호기심이 많아지며 감수성도 아주 예민해진다[1]. 또한 아동기에 비해 사회활동이 넓어지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벗어나 독립적인 위치를 얻으려고 노력하며,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에서의 입장, 사회적, 인간적 역할 기대 수행 등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1]. 이때 일상생활속의 갈등이나 문제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며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탈출구를 찾게 되는데 친구들과 어울려 호기심이나 모험심으로 음주나 흡연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1]. 그 중에서도 음주는 폭력과 절도, 범죄와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2]에서 청소년의 음주율이 2019년 15.0%, 2018년 16.9%, 2017년 16.1%이고, 남학생이 16.9%로 여학생 13.0%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이 21.8%로 중학생 7.6%보다 높았다. 위험음주율은 남학생 9.1%, 여학생 8.6%이었으며, 고등학생(남 14.8%, 여 13.1%)이 중학생(남 2.6%, 여 3.3%)에 비해 높았다.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정신을 잃거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던 만취 경험률은 남학생 3.0%, 여학생 2.5%이었으며, 고등학생(남 4.5%, 여 3.5%)이 중학생(남 1.3%, 여 1.4%)에 비해 높았다. 2010년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3]에 따르면 미국 중학생 1학년과 2학년의 음주율이 각각 7.3%와 16.7%인 반면 한국 중학생은 17.1%와 19.5%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중학생이 미국 중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기의 음주관련 행동은 성인이 된 후 알코올 사용 장애(알코올 중독, 의존, 남용)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 조사에 따르면,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이 14세 이전일 때가 21세 이상일 때보다 고위험 음주의 경향성이 3배 정도 높고, 고등학생 때 고위험 음주 경험은 대학생이 된 후 고위험 음주로 이어진다[4]. 국내의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서[5]에 따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 술을 마신 평생음주율이 74.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10대 후반과 20대에 남녀 모두 알코올 사용장애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음주는 심장, 간, 위장 등 주요 장기에 손상을

주며 호르몬의 변화로 발육부진이나 성장장애를 초래하고 뇌세포 손상과 물질남용의 위험을 증가시킨다[4]. 특히 알코올에 의해 상해나 폭력행위, 절도, 기물파손 등과 같은 경험은 점차 충동조절 능력과 이성적 판단 장애로 각종 범죄나 문제 행동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청소년기에 음주를 하면 해마를 위축시켜 기억력과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지고 뇌 조직의 광범위한 파괴현상으로 방향감각 상실, 기억장애까지 보일 수 있고 학업능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에는 다양한 정서적·사회적 기술 습득의 기회를 감소시킨다[4]. 그러나 우리나라 음주문화는 대체로 관대하게 수용되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의 음주행위가 대수롭지 않은 비행으로 취급되거나 일부 문제 집단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미 일반 학생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의 일차적 원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간 관계가 언급된다[6].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 자녀에 대한 낮은 통제 방식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가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조절효과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 7]. 부모 양육행동과 함께 가족 간의 결속력 및 유대감도 청소년 음주행동과 관련성을 가지며 가족유대감이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8, 9]. 부모가 정한 규칙과 부모감독이 청소년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정윤주·낸시 달링[10]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정한 규칙에 대한 준수 의무감이 강할수록,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음주문제행동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부모의 친밀도, 부모의 감독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1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자녀와 부모의 음주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대화 정도에 따라 자녀가 또래압력 등으로의 음주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청소년은 부모나 교사의 가르침에 따르던 행동도 점차 그 영향력을 벗어나면서 같은 시기 문화를 공유하는 또래 친구들과 관계가 훨씬 밀접해지고 그 영향력도 크지게 된다. 옹고 그림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동류의식과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는 동조현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교우 집단에서 거절경험이나 따돌림은 스트레스와 좌절, 외로움, 분노로 이어져 음주행위 등과 같

은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야기한다. 대학생의 대상으로 한 조희[12]의 연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수연[13]의 연구에서는 또래집단의 친구동조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음주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문제성 음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또래의 음주행동, 음주에 대한 태도, 음주 빈도, 음주량이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음주행위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14]. 또한 여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또래 관계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밝혀져[15]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성별에 상관없이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 음주예방에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 대중매체 종류가 다양해지고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어 대중매체를 통한 모방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중매체의 광고, 드라마, 영화 등에서 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높이는 장면들에 자주 접촉할수록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또는 음주충동이 증가하였다[16]. 특히 맥주 광고의 경우 집단적으로 마시고, 원샷으로 마시거나 넘치도록 마시기 등의 음주문화의 단면을 자주 묘사함으로써[17] 청소년 음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주류광고에 대한 제한 또는 경고문구 삽입, 주류구입 연령제한 등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구매하고자 했던 청소년 중 70% 이상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18] 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김용복[19]의 연구에서 주류광고 경험은 TV, 옥외광고판, 인터넷, 지역사회 행사, 신문, 잡지 순으로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V채널 주류광고를 본 대상자의 음주양상 2.58배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음주의향에서 1.64배, 현재 음주에서 3.26배 유의하게 높게 나타와 청소년 음주행위에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친밀도, 부모의 감독, 또래 압력, 대중매체의 술 광고가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대한 영향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친밀도, 부모감독, 또래압력, TV

술 광고의 변인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이들 간의 구조모형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집단 간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부모친밀도, 부모감독, 또래 압력, TV 술광고 정도를 파악한다.
- 측정모형 타당도와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와 적합도를 확인하고, 부스스트랩핑으로 총, 직접, 간접 효과를 확인한다.
-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측정동일성을 확인 후 집단별 구조모형 분석을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부모친밀도, 부모관리감독, 또래 압력, TV 술광고가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통해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설문조사 협조를 수락한 G시 8개 중학교의 1~3학년층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설문조사는 담임 선생님과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배포하고 학생이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사전에 담임 선생님과 보건교사에게 조사의 의미와 설문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1,032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 것만 602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2.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가 보고형 설문지로 구성되었으며, 부모친밀도 3문항, 부모관리감독 3문항, 또래집단 5문항, 대중매체 3문항, 일반적 특성 7문항, 음주문항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3.1 부모와 친밀도

부모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김성이, 전찬화, 김재은[20]가 사용한 설문 문항 중 부모의 친밀도에 대한 해당하는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이, 전찬화, 김재은[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 2.3.2 부모의 감독

부모의 감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준호, 이동원[21]이 Hirsch[22]의 부모의 대한 애착의 하위 차원으로 사용한 세가지 요인 중 부모감독 문항을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개문항 중 본 연구에 적합한 3개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감독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 2.3.3 또래압력

Santor, Messer, Kusumaker[23]가 개발하고 이해진[24]이 번역한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또래 압력을 측정하는 문항 중 음주와 관련된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음주압력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해진[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3.4 TV술광고

Aktin[25]이 개발한 맥주에 관한 태도와 음주행위에 관한 설문을 황등한[2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성혜정[27]의 연구에서 사용한 6개문항 중 본 연구에 적합한 3개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술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 2.3.5 음주행위

청소년 음주행위는 파악하기 위해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사용하였다. 음주량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이며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기준으로 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

주 1잔과 맥주 1잔을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음주빈도는 지난 1년간 마신 날로 살펴보았다. 1년간 술 마신날을 년 1~6회는 1점, 월 1~2회 2점, 주 1~2회 3점, 주 3~4회 4점, 거의 매일을 5점으로 전환하여 측정하였으며, 음주량은 소주 1~2잔 1점, 소주 3~4잔 2점, 소주 5~6잔 3점, 소주 1~2병 4점, 소주 2병 이상 5점으로 전환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빈도가 빈번하고 음주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kaya IRB-170호) 후 G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임 선생님과 보건교사가 대상자에게 연구취지와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즉석에서 회수하였고 연구에 참여해 준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로 감사표시를 하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서술적 통계, 도구 신뢰도, 변수간 상관관계는 SPSS/WIN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구조 모형은 AMOS 18.0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으로 요인부하량과 임계비를 검증하고, 개념타당성, 판별타당성, 법칙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 검증은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치( $\chi^2$ ),  $\chi^2/df$ ,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평균제곱잔차이중근(root mean-square residual, RMR),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증분적합지수인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표준적합지수(Tuiker-lewis index, TL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이용하였다. 직접, 간접, 총효과 검증은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 집단분석을 사용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은 1학년 69명

(11.5%), 2학년 69명(31.4%), 3학년 464명(77.0%)이며, 성별은 남자 387명(64.3%), 여자 215명(35.7%) 이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 60명(10.0%), 중 480명(79.7%), 하 62명(10.3%)이었고, 부모와 동거 여부에서는 예 578명(96.0%) 아니오 24명(4.0%)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상위권 119명(19.8%) 중위권 305명(50.7%), 하위권 178명(29.5%)으로 나타났다. 교우 관계에서는 좋은편 425명(70.6%), 보통 169명(28.1%), 좋지 않은 편 8명(1.3%) 순이며, 교사와 관계는 좋은편 347명(57.6%), 보통 239명(39.7%), 좋지 않은 편 16명(2.7%)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 관련 특성에서 첫 음주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 99명(16.4%), 초등학교 1학년 118명(19.6%), 초등학교 2학년 97명(16.15), 초등학교 3학년 93명(15.4%), 초등학교 4학년 104명(17.3%), 초등학교 5학년 이상 91명(15.2%)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년 1~6회 489명(81.2%), 월 1~2회 72명(12.0%), 주 1~2회 18명(3.0%), 주 3~4회 14명(2.3%), 거의 매일 9명(1.5%)으로 나타났다. 평균 음주량은 소주 1~2잔 473명(78.5%), 소주 3~4잔 78명(13.0%), 소주 5~6잔 21명(3.5%), 소주 1~2병 17명(2.8%), 소주 2병이상 13명(2.2%)이었고, 정신을 잃거나

기억 못할 정도로 과음한 날은 없음 579명(96.2%), 월 1~2일 15명(2.4%), 월 3~4일 7명(1.2%), 월 5~6일 1명(0.2%)으로 나타났다. 주로 술을 마신 장소는 집 혹은 친구 집 146명(24.3%), 놀이터 나 공원 101명(16.8%), 길거리나 야산 69명(11.5%), PC방 이나 비디오방 53명(8.8%), 식당이나 술집 41명(6.8%), 무응답 192명(31.9%) 이었고, 술 구입 경로는 집 혹은 친구 집에 있는 것 206명(34.2%), 성인으로부터 얻어서 82명(13.8%), 편의점이나 가게 72명(12.0%), PC방이나 노래방 57명(9.5%), 식당, 등 술집에서 주문해서 17명(2.8%), 무응답 168명(27.9%)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술에 관한 교육을 받은적 있는지는 있다 379명(63.0%), 모른다 147명(24.3%), 없다 76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 3.2 주요변인의 서술적 통계 및 다중공선성 분석

대상자의 부모친밀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는  $3.85 \pm 0.79$ 이고, 부모감독은  $3.65 \pm 0.89$ , 또래압력이  $1.58 \pm 0.7$ , TV술광고가  $2.02 \pm 0.89$ , 음주행위가  $1.34 \pm 0.74$  이었다. 본 연구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분산팽창요인(VIF)이 10을 넘는 변수가 없었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Mean±SD) /item	Skewness	Kurtosis	tolerance	VIF	Estimate	SE	CR	AVE
Parental intimacy									
Parental intimacy 1	4.11±0.90	-0.88	0.55	0.41	2.46	0.83	0.28	0.85	0.66
Parental intimacy 2	3.98±0.95	-0.71	0.18	0.38	2.64	0.87	0.22		
Parental intimacy 3	3.45±0.92	-0.19	-0.23	0.58	1.73	0.65	0.48		
Parental supervision									
Parental supervision1	3.66±1.03	-0.58	-0.21	0.45	2.23	0.78	0.41	0.85	0.65
Parental supervision 2	3.68±0.98	-0.46	-0.14	0.36	2.77	0.89	0.20		
Parental supervision 3	3.60±1.03	-0.41	-0.33	0.50	2.00	0.75	0.47		
Peer pressure									
Peer pressure 1	1.58±0.92	1.67	2.35	0.34	2.93	0.83	0.26	0.93	0.73
Peer pressure 2	1.55±0.86	1.72	2.93	0.26	3.86	0.89	0.16		
Peer pressure 3	1.72±1.02	1.26	0.61	0.52	1.93	0.70	0.52		
Peer pressure 4	1.48±0.80	1.91	3.78	0.20	5.10	0.94	0.08		
Peer pressure 5	1.55±0.87	1.66	2.47	0.38	2.61	0.79	0.28		
TV alcohol advertisement									
TV alcohol advertisement 1	2.27±1.07	0.52	-0.31	0.53	1.91	0.71	0.56	0.85	0.66
TV alcohol advertisement 2	2.01±1.03	0.79	0.06	0.33	3.00	0.93	0.14		
TV alcohol advertisement 3	1.77±0.96	1.11	0.67	0.41	2.43	0.79	0.34		
Drinking									
Drinking frequency	1.31±0.77	3.00	9.27	0.52	1.93	0.72	0.31	0.77	0.63
Alcohol consumption	1.37±0.86	2.71	7.12	0.49	2.03	0.78	0.36		

Table 2. Correlation Matrix Table

	Parental intimacy	Parental supervision	Peer pressure	TV alcohol advertisement	Drinking
Parental intimacy	<b>0.66</b>				
Parental supervision	0.68 ( <.001)	<b>0.65</b>			
Peer pressure	-0.16 ( <.001)	-0.12 (.002)	<b>0.73</b>		
TV alcohol advertisement	-0.05 (.258)	-0.01 (0.78)	0.46 ( <.001)	<b>0.66</b>	
Drinking	-0.11 (.006)	-0.13 (.001)	0.33 ( <.001)	0.19 ( <.001)	<b>0.63</b>

\* The diagonal matrix for each factor is the variance extraction index

고 공차한계도 0.1이하인 변수가 없어 측정변수간 다중 공선성 문제는 낮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참고).

### 3.3 측정모형의 검증

1단계는 측정모형의 개념타당성, 판별타당성, 법칙타당성과 적합도를 확인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확인한 후 2단계로 가설적 모형의 전체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 3.3.1 측정모형의 확인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대상자의 부모친밀도, 부모감독, 또래집단, TV술광고, 음주행위 변인에 대해 확인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 값은 259.60(df=94,  $p<.001$ ), CMIN/DF( $\chi^2$ /df)=2.76 GFI=0.95, AGFI=0.93, RMR=0.04, NFI=0.96, TLI=0.96, CFI=0.97, RMSEA=0.05로 양호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요인들의 표준화계수는 모두 0.5 이상이고, 모든 요인에서 개념신뢰도(CR, 0.7이상)와 분산추출지수(AVE, 0.5이상)가 임계치 이상을 보여 신뢰성과 개념타당성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참고).

#### 3.3.2 상관계수의 분산추출지수

각 요인의 다중 상관계수( $r^2$ )의 값이 대각선의 분산추출지수보다 모두 작아 요인 간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음주행위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친밀도  $r=-0.11(p=.006)$ , 부모감독은  $r=-0.13(p=.001)$ 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또래압력  $r=0.33(p<0.01)$ , TV술광고  $r=0.18(p<0.01)$ 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법칙타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참고).

### 3.4 가설적 모형의 검증

#### 3.4.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최대우도법(ML : Maximun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chi^2$ 값은 394.60(df=95,  $p<.001$ ), CMIN/DF( $\chi^2$ /df)=4.15 GFI=0.93, AGFI=0.90, NFI=0.93, TLI=0.93, CFI=0.95, RMSEA=0.07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 값은 566.21( $p<.001$ )로 가설적 모형이 기각되었으나 다른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MIN/DF는 3.0 이하이면 우수한 적합도이고 5.0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CMIN/DF=4.15로 양호한 적합도로 나타났으며, GFI=0.93, AGFI=0.90, NFI=0.93, TLI=0.93, CFI=0.95,는 우수한 적합도의 기준인 0.90 이상으로 우수한 적합도로 나타났다. RMSEA는 0.05이하이면 우수한 적합도이고 0.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모형에서는 RMSEA=0.07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Table 3 참고).

Table 3. Hypothetical Mode of Fitness

$\chi^2$ (p)	DF	CMIN/ DF	GFI	AGFI	RMR	NFI	TLI	CFI	RMSEA
criteria		≤.3	≥.90	≥.90	≤.08	≥.90	≥.90	≥.90	≤.08
394.60 (<.001)	95	4.15	0.93	0.90	0.04	0.93	0.93	0.95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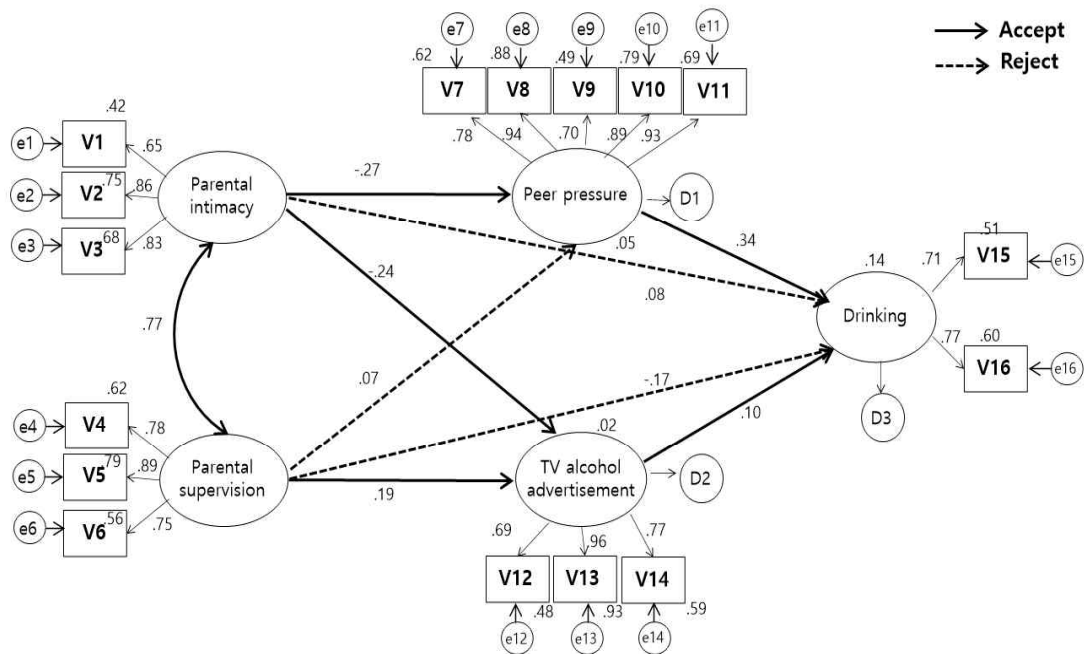
#### 3.4.2 가설적 모형의 모수치 추정

변인들 간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으로 가설적 모형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음주행위와 또래압력 사이의 경로계수는 0.34( $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행위와 TV술광고 사이의 경로계수는 0.10( $p=.038$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주행위와 부모친밀도

Table 4. Modified Mode of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Pathway hypothesis	Estimates	SE	CR(t)	p	SMC	Result
Drinking	← Peer pressure	0.34	0.05	5.98	<.001	0.14	Accept
	← TV alcohol advertisement	0.10	0.04	2.08	.038		Accept
	← Parental intimacy	0.08	0.07	0.85	.398		Reject
	← Parental supervision	-0.17	0.07	-1.85	.065		Reject
Peer pressure	← Parental intimacy	-0.27	0.08	-3.32	<.001	0.05	Accept
	← Parental supervision	0.07	0.07	0.90	.367		Reject
TV alcohol advertisement	← Parental intimacy	-0.24	0.08	-2.86	.004	0.02	Accept
	← Parental supervision	0.19	0.08	2.24	.025		Accept



V1: Parental intimacy 1, V2: Parental intimacy 2, V3: Parental intimacy 3, V4: Parental supervision1, V5: Parental supervision2, V6: Parental supervision3, V7: Peer pressure 1, V8: Peer pressure 2, V9: Peer pressure 3, V10: Peer pressure 4, V11: Peer pressure 5, V12: TV alcohol advertisement 1, V13: TV alcohol advertisement 2, V14: TV alcohol advertisement 3, V15: Drinking frequency, V16: Alcohol consumption

Fig 1. Path diagram for Modified Mode

사이의 경로계수는 0.08( $p=.398$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행위와 부모감독 사이의 경로계수는  $-0.17(p=.065)$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행위에 대한 또래압력, TV술광고, 부모친밀도, 부모감독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자승(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은 14.4%이었다.

둘째, 또래압력과 부모친밀도 사이의 경로계수는  $-0.27(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압력과 부모감독사이의 경로계수는  $0.07(p=.367)$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압력에 대한 부모친밀도, 부모감독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자승은 4.9%이었다.

셋째, TV술광고와 부모친밀도 사이의 경로계수는  $-0.24(p=.004)$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TV술광고와 부모감독사이의 경로계수는  $0.19(p=.025)$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V술광고에 대한 부모친밀도, 부모감독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자승은 2.3%이었다.

결론적으로 음주행위와 또래압력, 음주행위와 TV술광고, 또래압력과 부모친밀도, TV술광고와 부모친밀도, TV술광고와 부모감독 사이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주행위와 부모친밀도, 음주행위와 부모감독, 또래압력과 부모감독 사이의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 1 참고).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Pathway hypothesis	Direct effect coefficient( <i>p</i> )	Indirect effect coefficient( <i>p</i> )	Total effect coefficient( <i>p</i> )
Drinking	← Peer pressure	0.34(.015)		0.34(.015)
	← TV alcohol advertisement	0.10(.104)		0.10(.104)
	← Parental intimacy	0.08(.334)	-0.12(.011)	-0.04(.727)
	← Parental supervision	-0.18(.018)	0.04(.256)	-0.13(.180)
Peer pressure	← Parental intimacy	-0.27(.014)		-0.27(.014)
	← Parental supervision	0.07(.447)		0.07(.447)
TV alcohol advertisement	← Parental intimacy	-0.24(.027)		-0.24(.027)
	← Parental supervision	0.19(.074)		0.19(.074)

Table 6. Measurement equality comparison

Model	$\chi^2(p)$	DF	GFI	CFI	TLI	RMSEA	$\Delta\chi^2/df$	Sig
Model 1 Non-Restrict	518.67 ( $<.001$ )	190	0.91	0.94	0.93	0.05	13.1/11	Not significant
Model 2 $\lambda$ Restrict	531.78 ( $<.001$ )	201	0.91	0.94	0.93	0.05		

\*  $\lambda$  Factor loading

### 3.4.3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검증

가설적 모형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파악한 결과, 음주행위에 대한 직접효과는 또래압력이 0.34( $p=0.015$ )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총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친밀도는 0.08( $p=.334$ )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TV술광고를 통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12( $p=.01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고).

## 3.5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 3.5.1 다중집단 확인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모형은  $\chi^2$ 값은 518.67 df=190이며 제약모형의  $\chi^2$ 값은 531.78 df=201로  $\chi^2$ 의 차이는 13.11, df의 차이는 11, 유의수준 .286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은 측정변인들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 단계인 집단별 구조모형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Table 6 참고).

### 3.5.2 다중집단 조절효과 검증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또래압력( $\beta=0.32, p<.001$ )이 음주행위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TV술광고( $\beta=0.08, p=.169$ ), 부모친

밀도( $\beta=0.11, p=.376$ ), 부모감독( $\beta=-0.15, p=.225$ )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압력에 부모친밀도( $\beta=-0.37, p<.001$ )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모감독( $\beta=0.24, p=.021$ )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TV술광고는 부모친밀도( $\beta=-0.34, p<.001$ )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모감독( $\beta=0.36, p<.001$ )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또래압력( $\beta=0.40, p<.001$ )이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TV술광고( $\beta=0.09, p=.250$ ), 부모친밀도( $\beta=-0.01, p=.938$ ), 부모감독( $\beta=-0.19, p=.219$ )은 음주행위에 유의하지 않았다. 또래압력에 부모친밀도( $\beta=-0.14, p=.317$ ), 부모감독( $\beta=-0.18, p=.182$ )은 유의하지 않았고, TV술광고에서도 부모친밀도( $\beta=-0.09, p=.550$ ), 부모감독( $\beta=-0.09, p=.554$ )은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부모감독이 또래압력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감독이 TV술광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 집단간 차이는 모수치간 쌍대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를 통해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학생 집단에서는 부모감독이 또래압력과 TV술광고에 영향을 미쳤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부모감독이 또래압력과 TV술광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감독은 성별에 따라 또래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었다. 또래압력, TV술광고, 부모친밀도, 부모감독이 음주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남학생 집단은 10.5%의 설명력이 있었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26.5%의 설명력이 있어 두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7 참고).



Table 7. Comparison of Measurement Identities Between Free and Constrained Models

Pathway hypothesis	schoolboy (n=387)			schoolgirl (n=215)			Sig	
	Estimates	CR(t)	Result	Estimates	CR(t)	Result	CR	
Drinking	← Peer pressure	0.32	4.20 (<.001)	Accept	0.40	4.35 (<.001)	Accept	0.99
	← TV alcohol advertisement	0.08	1.38 (.169)	Reject	0.09	1.15 (.250)	Reject	0.16
	← Parental intimacy	0.11	0.89 (.376)	Reject	-0.01	-0.08 (.938)	Reject	-0.63
	← Parental supervision	-0.15	-1.21 (.225)	Reject	-0.19	-1.23 (.219)	Reject	-0.08
Peer pressure	← Parental intimacy	-0.37	-3.49 (<.001)	Accept	-0.14	-1.00 (.317)	Reject	1.62
	← Parental supervision	0.24	2.30 (.021)	Accept	-0.18	-1.33 (.182)	Reject	-2.58
TV alcohol advertisement	← Parental intimacy	-0.34	-3.32 (<.001)	Accept	-0.09	-0.60 (.550)	Reject	1.61
	← Parental supervision	0.36	3.48 (<.001)	Accept	-0.09	-0.61 (.544)	Reject	-2.79

####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친밀도와 부모감독을 외생변수로, 또래압력과 TV 술 광고를 내생변수로 하여 음주행위를 예측하기 위한 구조모형분석 연구로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친밀도, 부모감독, 또래압력, TV술광고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들은 개념타당도, 판별타당도, 법칙타당도를 확보하여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가 모형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 결과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는 또래압력 ( $\beta=.34$ )가 가장 큰 정적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TV 술 광고( $\beta=.10$ )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또래압력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동수, 정명숙 [28]의 경로분석 연구에서 친구관계( $\beta=.50$ )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고, 대전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혜정 [27]의 연구에서 또래압력( $\beta=.42$ )이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김고은, 조남익 [29]의 연구에서도 또래압력( $\beta=.33$ )이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고, 청주시 청소년의 대상으로 한 정우용 [30]의 연구에서 친구영향( $\beta=.48$ )이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류나미 [31]의 연구에서 또래동조성향은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긍정적 음주기대와 음주거절 자기 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음주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특성 중 또래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되는 시기라는 것을 잘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지역사회기관에서 친구들의 동조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음주에 관한 건강한 인식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복지센터 등에서도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눈 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전달 매체를 통해 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바람직한 음주행위, 지혜로운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또래집단의 압력, 여러 가지 잠재적 문제상황으로 인한 음주행위 유발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음주거부 기술훈련, 부모 가이드 등이 포함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TV술광고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류나미 [31]의 경로분석 연구에서 긍정적 음주기대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같은 매개변수를 통해 음주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

용[30]의 연구에서 대중매체가 음주동기  $r=.39$ , 음주기 대감  $r=.36$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통해 술의 유혹을 받을수록 술에 의해 긴장감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를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며, 문제해결을 위해 술을 마시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32]의 연구에서 이미 음주경험이 있거나, 음주량이 많을수록, 음주기대가 긍정적일수록 TV 술광고 시청 후 음주행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김승수[33]의 연구에서는 TV드라마 시청( $\beta=-.21$ )이 청소년 음주의도에 부적 영향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내는데 이는 술 판매를 위한 긍정적인 음주 광고와는 달리 드라마와 같은 방송의 경우 긍정적, 부정적 모습이 함께 보여지게 되어 술의 부정적 모습을 통해 음주의도가 낮아지는 영향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술 광고에 노출될수록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술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은 음주행위를 더욱 유발하고 부정적인 모습은 음주의도를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어 추후 대중매체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부모친밀도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또래압력과 TV술광고를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수, 정명숙[28]의 연구에서 부모영향( $\beta=.15$ )이 음주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경[34]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행동( $\beta=-.05$ )이 온정적이지 않을수록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용[30]의 연구에서는 부모관계( $r=-.15$ )가 음주기대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친밀도( $r=-.14$ )가 낮을수록 술로 인한 사교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즉 올바른 양육기술 교육, 학생과 부모 심리상담, 음주청소년 학부모 모임 지원, 기타 경제적 및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반면, 성혜정[2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영향력( $\beta=.09, p=.280$ )이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상이하였다. 추후 부모의 영향력을 세분화하고 음주 청소년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부모감독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TV술광고를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나미[31]의 연구에서 부모관리감독이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beta=.09$ )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정우용[3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 $r=-.11$ )가 낮을수록 술로 인한 사교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혜영[32]의 연구에서 부모의 감독( $r=-.17$ )이 약해질수록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자녀가 잘 지킬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은 특히 청소년이 사회적 영향에 쉽게 흔들리 수 있는 시기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모의 통제가 적절하게 생활 속에 반영되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보이기 위한 부모교육과 심리적 지원,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 및 사회 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혜정[27]의 연구에서는 부모감독이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가족에 대한 관리나 통제기술, 양육방식, 부모와의 애착 등을 고려한 반복 연구할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남학생과 여학생이라는 성별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집단분석에서 남학생 집단은 음주행위에 또래압력이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친밀도와 부모의 감독은 또래압력을 통해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음주행위에 또래압력만이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수치간 쌍대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를 통해 유의한 결과는 남학생 집단에서 부모감독이 또래압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 집단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학생 집단에서는 부모감독이 TV 술광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 집단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두 집단간 성별에 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원경[34]의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 집단은 가족유대( $\beta=.05$ )가 음주행동에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 집단은 가족유대( $\beta=.02, p=.846$ )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정명숙, 이동수[14]의 연구에서 남학생 집단은 부모영향( $\beta=.18, p=.108$ )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학생 집단에서는 부모영향( $\beta=.17$ )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 집단은 부모영향( $\beta=.66$ )이 음주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 집단에서는 부모영향( $\beta=.06, p=.290$ )이 음주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행위와 음주태도에 대한 부모영향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남학생의 음주행동을 이해하는데 가족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여학생보다는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고, 술에 대한 태도도 남학생이 부모의 음주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모와 관계, 부모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올바른 음주인식과 태도, 건강한 가족문화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반된 결과도 있어 추후 청소년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족 구조 형태에 따른 청소년 음주행위 조절효과를 파악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또래압력과 TV술광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또래압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또래집단의 음주예방 프로그램, 또래집단 특성과 개인별 상황에 맞는 중재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V 술광고에서는 음주판매를 위한 광고보다 건강한 음주문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의 친밀도와 부모의 감독은 개인이 지각하는 인식이 각기 다르고 부모의 특성이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추후 이러한 차이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행위 영향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음주행위 영향요인의 차이를 통해 남, 여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전략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다양한 음주예방 프로그램 제공,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 건강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예측하기 위해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의 모수치와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는 또래압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TV 술광고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음주행위를 14.4% 설명하였다. 부모친밀도는 또래압력과 TV 술 광고를 통해 음주행위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감독은 TV술광고를 통한 음주행위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집단 조절효과에서 부모의 감독과 또래집단, 부모감독과 TV술 광고의 경로계수가 집단간 차이가 있어 부분조절효과가 있었고,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에서도 남학생 집단이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또래압력과 TV 술광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모색과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 프로그램 제공, 또래압력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청소년 음주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친밀도, 부모감독은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개입을 통한 중재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성별, 경제력, 가정환경 등 청소년 특성에 따른 다른 개념을 도입해서 반복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N. M. Ryu & H. M. Yoon. (2008). Effects of Sensation Seeking, Peer Conformity, and Parental Management Factors on Adolescents` Drinking Behavior: Focused on the Positive Alcohol Expectancies &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Media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5, 39-69.
- [2] The 14th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Statistics Retrieved 2018. from <https://www.cdc.go.kr/yhs/>
- [3]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10). *Korean Youth Index Survey V. 2010 Korean Youth Health Survey*. Seoul.
- [4] U. S. (2003),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nderage drinking and the future of children.
- [5]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2004). *Investigation of characteristics of drinking youth and improvement measure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6] H. W. Jung. & S. H. Park, (2010). The change of victimization and the predictors in the early adolescen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1(1), 149-173.
- [7] H. Ch. Ch & M. S. Yoon.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Reciprocal relation between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Drink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2), 259-285.
- [8] Y. M. Kim.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Social Control Factors on Adolescent Drinking and Smoking. *Korean journal of youth*

- studies*, 13(6), 151-178.
- [9] L. Fang. & S. P. Schinke. (2011). Alcohol use among Asian American adolescent girls: The impact of immigrant generation status and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Ethnicity in Substance Abuse*, 10(4), 275-294. DOI : 10.1080/15332640.2011.623484
- [10] Y. J. Chyung & Nancy Darling. (2003). Differential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Monitoring and Adolescent Drinking and Vandalism as a Function of Adolescents' Parental Rule Obedi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3), 73-85.
- [11] S. A. Jang, N. A. Cho, & J. N. Yoo. (2012). Understanding the Antecedents of Korea High School Student'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ParentalInfluence, PeerInfluence, and Behavior.Global. *Journal of HealthScience*, 4(1), 10-21.
- [12] C. Hee. (2000). Developing a predictive model for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3] S. Y. Park. (2000). Aanalysis on the causes of juvenile drinking: with the objects of highschool students in Kangreung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14] M. S. Jung & D. S. Lee. (2008). An Analysis on the Control Effects with Sex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Effect Factors and Drinking Behavior of Teenag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1), 29-58.
- [15] J. H. Lee. (2010). Effects of Social Environment on Adolescent Alcohol Use. *The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1(2), 61-72.
- [16] C. W. Na. (2008).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in Adolescents' Alcohol Expect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17] G. H. Chung. (2007). A Study of the Influences of Drinking Scenes in Television Beer Advertising on the Consumer.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8(1), 187-218.
- [18] H. J. Yoo. (2017). *A study on the status of alcohol advertising regul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19] Y. B. Kim.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paterns of alcohol advertising exposure chanel and degre in korea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0] C. H. Jeon, J. E. Kim & S. Y. Kim. (1996). Television Beverage Advertising and Drinking Knowledge and Intentions among Schoolchildr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3, 1-20.
- [21] J. H. Kim & D. W. Lee. (1996). A Study on Strain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1, 13-165.
- [22] Hirsch. T. (1969). *The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California. Press.
- [23] Santor, D. A., Messerver, D., & Kusumaker, V. (2000). Measuring Peer Pressure, Popularity, and Conformity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163-177. DOI : 10.1023/A:1005152515264
- [24] H. J. Lee. (2001). *Influencing Factors on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25] Aktin, C. K. (1990) Effects of Televised Alcohol Messages on Teenage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11, 10-24. DOI : 10.1016/0197-0070(90)90125-L
- [26] D. H. Hwang. (2000). Effects of TV Beer Advertisements on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27] H. J. Sung. (201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Focusing on High School Students in Daejeon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l.
- [28] D. S. Lee. & M. S. Jung (2007) The Analysis of the Effect Factor on Drinking Behavior of Teenagers. *Social Welfare Policy*, 31, 125-148.
- [29] G. E. Kim & N. A. Cho. (2012). The Effects of drinking environment on the degree of youth drinking: Moderating Effects of the Interaction of Parents and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1), 125-148.
- [30] W. Y. Jung. (2009). A Study on the Related Factors of Adolescent's Drinking Behavior : Focused on the Adolescent's in Cheongju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 [31] N. M. Ryu. (2007). Effects of personal,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mass-media environment factors on adolescents' drinking behavior: focused on alcohol expectancies &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media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32] H. Y. Kim. (2009). Adolescent Drinking Behaviors and Related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eagu.
- [33] S. S. Kim. (2005). The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adolescent's drinking behavior and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usei University. Seoul.
- [34] W. K. Kim. (2014). Predictors of drinking behavior in Korean male and female youth.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9(3), 191-210.

주 현 정(Ju, Hyeon Jeong)

[정회원]



- 2009년 2월 : 고신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 석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보건통계학

· E-Mail : joo97964@naver.com